

시의 형태적 특성과 번역*

- 김혜순 시집 『한 잔의 붉은 거울』의 번역을 기반으로 -

이상빈**

Sang-Bin Lee (2022). On the Translation of Form in Poetry: An Investigation of Kim Hyesoon's *Han chan ũ pulgŭn kŏul* (*A Drink of Red Mirror*). In this article, I discuss the matter of form in poetry translation. My argument is that the visual elements of a poem are not always translated as they appear in the source text and may instead be reconstructed by the translator's interpretation of the poem. To clarify this argument, I compare *Han chan ũ pulgŭn kŏul*, a collection of surrealist poems written by Kim Hyesoon, with *A Drink of Red Mirror*, an English translation by Jiwon Shin, Lauren Albin, and Sue Hyon Bae. Specifically, I examine seven poems — *Old Refrigerator* (*Oraedoen naengjanggo*), *Lunar Month's End* (*Kŭmŭm*), *O* (*O*), *Face* (*Ŏlgul*), *Scribbled Letter* (*Kalgŷŏ ssŭn p'yŏnŭji*), *Eye of a Typhoon* (*T'aep'ung ũ nun*), and *Mixer & Juicer* (*Mixer & Juicer*) — in terms of layouting, lowercasing, italicizing, or spacing. Then, I briefly touch on the "same" poems in *Un verre de miroir rouge*, a French translation by Choon-woo Yee and Lucie Angheben. This comparison demonstrates the stark differences in visuals between the English and French translation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outh Korea)

Keywords: concrete poetry, experimental poems, poetry translation, collaborative translation, an interview with the translator

주제어: 구체 시, 실험 시, 시 번역, 공동 번역, 역자와의 인터뷰

* 이 논문의 일부 내용은 2022년 9월 24일 개최된 한국통역번역학회 학술대회에서 소개되었다. 토론자 박지영 교수님과 Sue Hyon Bae 번역가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EICC학과, 정교수

1. 서론

시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시인 중 한 명인 김혜순은 『Southeast Review』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1. 시를 시이게끔 만들어주는 요소를 시 텍스트에서 발견하는 능력(더불어 시가 기존의 시를 벗어나는 것을 포착하는 능력)
2. 시를 번역하고 있다는 자세보다는 번역자인 자신이 낯선 매혹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3. 번역 대상인 언어보다 번역자 자신의 언어의 지평을 넓혀간다고 생각하는 것, 번역자의 모국어의 잠재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믿는 것
4. 가능하다면 번역 대상인 시를 감옥에서 탈출시켜 주는 것(자신의 번역이 아니면 이 시가 감옥에서 영영 나올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갖는 것)
5. 그리고 무한한 자유 (Albin & Bac, 근간)¹⁾

위 내용은 시를 번역하는 기술(techniques)이라기보다는 시를 대하는 번역자의 마음가짐이나 접근법과 관련 있다. 언뜻 추상적으로만 보일 수 있으나 번역자에게 큰 영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위 다섯 가지 접근법 중에서 첫 번째 사항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시를 시이게끔 하는 요소는 무엇이며 어떤 시를 다른 시와 차별화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시를 차별화하는 요소는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다만 김혜순의 시처럼 레이아웃, 문장부호, 띄어쓰기 등부터 매우 독특하고 실험적인 시라면 형태적(외형적) 요소들도 시를 차별화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형태적 요소는 시를 잘 모르는 독자의 눈에도 쉽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시의 의미와 감상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Sullivan, 2019: 269; Underhill, 2016: 41).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시의 형태적 특성은 시 번역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원작 시의 형태적 요소는 출발어와 도착어 간의 차이로 인해 그대로 재현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번역자 개인이 원작 시의 형태적 특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현할 수도 있다. 위 인용문에서 김혜순이 언급하였듯이, 시 번역자는 언어의 지평을 넓히고 모국어(도착

1) 『A Drink of Red Mirror』의 역자 후기(pp. 91-92)에는 이 발췌문의 영어 버전이 있다. 본 연구의 방향에 부합하여 여기서 인용한다.

어)의 잠재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원작의 낯선 매혹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고 시에 자유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김혜순의 시처럼 외형적으로도 실험적인 시라면 더욱더 그러하다.

이에 본고는 김혜순의 시집 『한 잔의 붉은 거울』과 영어 번역본 『A Drink of Red Mirror』를 비교하여 시 번역에서의 형태적 변형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영어 번역 사례 아홉 개를 제시하고 역자와의 이메일 교신 내용을 활용하여 각 사례에 나타난 형태적 변화의 양상과 배경을 소개한다. 또한 형태적 측면에서 원작과 유사한 프랑스어 번역본도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영어 번역만의 특징을 논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번역 시의 형태적 특징이 역자의 해석과 창의성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2. 시가(詩歌) 문학 작품의 형태적 특징과 번역

시가 문학 분야에서 원작과 번역의 형태적 요소를 비교하는 연구는 주로 구체 시(*concrete poetry*) 장르에서 이루어졌다. 구체 시란 아주 간단히 말해 기존의 ‘읽는’ 시와 비교해 청각적 요소나 시각적 요소를 강조한 실험 시이다. 구체 시 작가들은 시의 의미에만 집중하지 않고 “언어 자체를 하나의 질료(質料)로 보고 언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시청각] 효과를 내려고 한다”(정인모, 2021: 415). 구체 시는 비교적 최근에서야 번역(학)의 관점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그림 1>이 그러한 사례이다.

茶
 香叶, 嫩芽。
 慕诗客, 爱僧家。
 碾雕白玉, 罗织红纱。
 铤煎黄蕊色, 碗转曲尘花。
 夜后邀陪明月, 晨前独对朝霞。
 洗尽古今人不倦, 将知醉后岂堪夸。

Tea
 Fragrant leaves, budding delicately.
 Praised by poets, adored in the monastery.
 Ground by white jade, sieved through red mesh to purify.
 Warmed in a pot till golden in hue; served, swirling, in cups, frothily.
 After nightfall, carousing with the moon; before sunrise, in the gloaming, solitary.
 Famed in our ancestors' time as a restorative, a long-renowned remedy for insobriety.

그림 1. 레이아웃 번역 사례 (Li, 2020: 38)

www.kci.go.kr

<그림 1>은 차(茶)라는 중국 시와 그 영어 번역이다. 한눈에 알 수 있듯이 원작의 가장 큰 특징은 행마다 두 자씩 추가해 만든 삼각형 모양의 레이아웃이다. 이러한 외형은 영어 번역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혹자의 눈에는 간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형태적 전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난해하다. 원문의 명제적 의미와 각운(ly, y 등으로 끝나는 시청각 요소) 등의 리듬을 고려하면서 각 행의 길이를 조절해야 하기 때문이다.

번역 텍스트에 시의 형태적 요소를 반영할 때는 다양한 문법 요소와 장치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2>에 있는 ‘시링크스’(Syrinx, 테오크리토스 [Theocritus]의 시)의 마지막 부분과 그 번역(영어/포르투갈어)을 비교하면 ‘띄어쓰기’를 통한 형태적 변형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역의 마지막 행(*unseen / ainvisivel*)에는 그리스어 원문과 달리 글자마다 띄어쓰기가 있는데, 이는 난해한 *νηλεύστω*(invisible)의 뜻을 조금이나마 구현하기 위한 역자의 창의적 구성물로 해석된다(Pondian, 2020: 29).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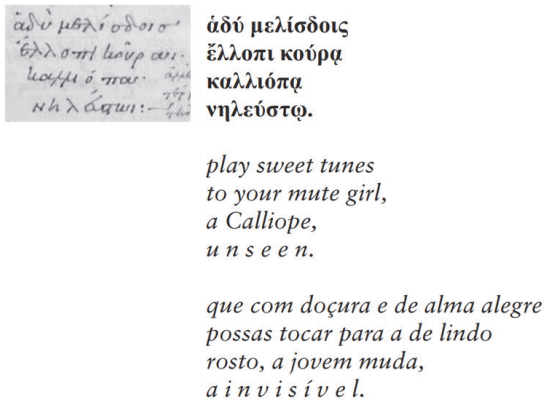


그림 2. 글자 간격 변경 사례 (Pondian, 2020: 23, 29)

국내 번역학에서 시가 문학 작품의 형태, 구조 등을 탐구한 논문은 시조, 판소리 등 주로 고전과 관련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러한 문학 장르는 도착어 문화에는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형태적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판소리 「심

2) 시링크스(시링가)는 판의 피리, 팬파이프(Pan Pipes)를 뜻한다. 그리스 신화의 반수신(半獸神) 판이 연주한 데서 비롯되었다. 신조어 *νηλεύστω*는 이 시에서만 사용된 독특한 어휘(hapax logomenon)로 추정된다.

청가」 완판본은 글자 간 띄어쓰기가 전혀 없고 창(노래)과 아니리(서술)가 구분되지 않은 독특한 ‘산문’이다. 이상빈(2021)은 마샬 필(Marshall Pihl)의 「심청가」 영어번역본 “The Song of Shim Ch’ong”(1994년 출간)을 분석하면서, 아니리, 창, 원문 정보(판소리 장단의 종류, 번역과 대응되는 원문의 위치) 등이 영어에서 어떻게 재구조화되었는지를 <그림 3>과 같이 소개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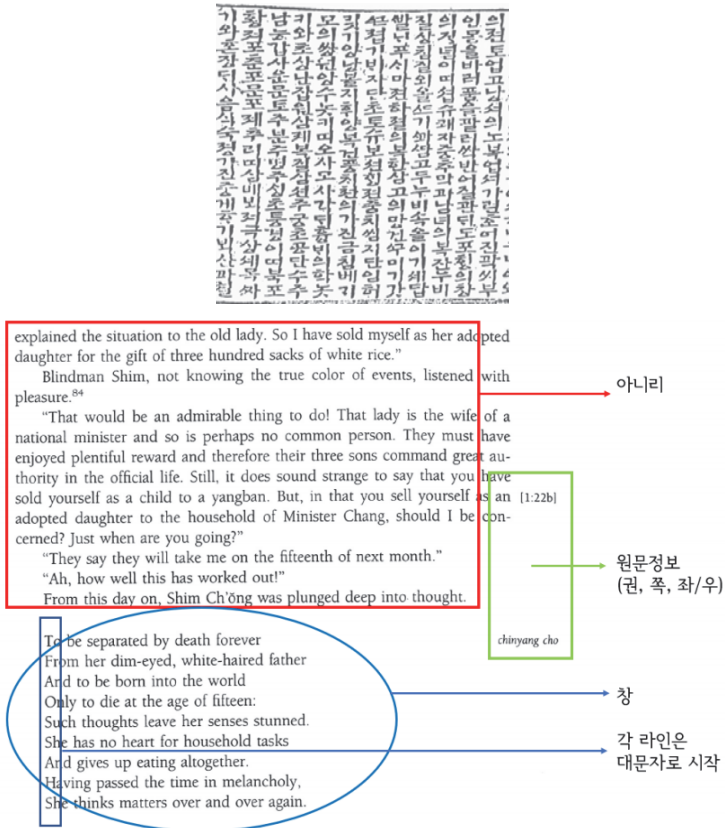


그림 3. 「심청가」와 영역본의 형태적 차이 (이상빈, 2020: 182에서 인용)

또한 이상빈(2022)은 시조 번역의 형태와 구조도 탐구한 바 있다. 그는 윤선도의 연시조 「어부사시사」와 여러 영어 번역본을 제시하고 각 번역자가 시조의 3장(초장-중장-종장) 구조와 여음구(후렴구)를 어떻게 시각화했는지를 비교하였다. 특히 케빈 오록(Kevin O'Rourke)이 착안한 5행 구조(초장 2행, 중장 1행, 종장 2행)

에 주목하면서 오록의 번역이 시기에 따라 구조적으로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추적하였다. 이 통시적 분석에 따르면 오록은 다른 번역자가 애용했던 3장 6행(초장/중장/종장 각 2행)의 안정적인 구조를 따르다가 2001년³⁾ 이후부터는 자신이 개발한 3장 5행 구조를 사용하였고 여음구를 모두 이탤릭체로 표현하였다. 이상빈은 이러한 시조 형식이 “서양 독자가 시조를 접하면서 느낄 매우 낯설고 이국적인 감정을 구조적으로 표면화”(p. 128)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국 고전 시가의 번역에서도 시의 형태적 특성은 레이아웃이나 연(聯) 구조와 같이 상위 구조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대·소문자 구분, 띄어쓰기, 들어쓰기 등과 같이 작아 보이는 부분들도 나름의 시각적 효과를 연출하면서 시 수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시조 영역(英譯)에서도 행을 대문자로 시작할지, 들어쓰기를 적용할지, 후렴구를 이탤릭체로 쓸지 등이 번역을 차별화하는 요소로 논의됐다. 일례로, 이상빈(2022: 123)이 소개한 아래 두 번역은 똑같은 시조를 번역한 것이지만, 각 행의 대·소문자 구분, 문장부호(느낌표) 사용, 이탤릭체 적용 범위, 들어쓰기 여부 및 방식 등이 달라 시의 첫인상부터가 다르다.

Let us tread the scented grass,
and gather tree-root mushrooms.
Pull the boat in, pull the boat in!
What did we carry
with us in this slip of a boat?
Chigukch'ong, chigukch'ong, ōshwa!
When we went, myself alone;
returning, the moon as well. (Rutt, 1971: 189)

Let's tread on fragrant grasses
And pick orchids and angelica.
Stop the boat, stop the boat!
What have I taken aboard
On my boat small as a leaf?
Chigukch'ong chigukch'ong ōsawa.
Nothing except smoke when I set sail,
When I row back, the moon is my tenant. (Lee, 1981: 183)

3) 최근 이상빈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오록의 1995년 번역에도 5행 구조가 사용되었다(O'Rourke, 1995: 117을 확인할 것).

위와 같은 논의를 고려하여 필자도 김혜순 시의 형태적 특성을 논의할 때 시의 구조뿐만 아니라 문법적 요소들도 살펴봤다. 본 연구는 현대 한국 시의 번역을 형태적 측면에서 탐구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다르며, 서로 다른 두 번역을 비교했다는 점에서도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3. 『한 잔의 붉은 거울』과 『A Drink of Red Mirror』

3.1. 김혜순과 『한 잔의 붉은 거울』

김혜순은 여성의 몸과 경험을 실험적 글쓰기로 담아낸 한국의 대표 페미니스트 시인이다. 1979년 계간 『문학과 지성』을 통해 등단하여, 80년대부터 한국 여성 시의 외연을 크게 넓힌 자로 평가받아왔다. 문학과지성사 이광호 대표는 김혜순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시인 중에] 가장 많이 해외에 소개된” 시인으로 묘사하면서, “김혜순의 시를 읽는 것은 세계 독자들과 함께 있는 동시대성”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정연, 2022.4.29.). 이러한 평가에 맞게 수상 경력도 화려하다. 김수영문학상(1997), 소월시문학상(2000), 현대시작품상(2000), 미당문학상(2006), 대산문학상(2008) 등 국내 주요 문학상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그리핀 시 문학상(2019), 스웨덴 시카다상(2021) 등의 해외 문학상도 받았다. 대표 시집으로는 『또 다른 별에서』(1981), 『아버지가 세운 허수아비』(1985), 『나의 우파니샤드, 서울』(1994), 『불쌍한 사랑 기계』(1997), 『달력 공장 공장장님 보세요』(2000), 『슬픔치약 거울크림』(2011), 『죽음의 자서전』(2016), 『날개 환상통』(2019) 등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한 잔의 붉은 거울』은 2004년 문학과지성사에서 출판된 김혜순의 여덟 번째 시집이다. 이 시집에는 ‘붉은 장미꽃다발’(첫 번째 시), ‘한 잔의 붉은 거울’(대표 시), ‘날마다의 장례’(마지막 시)를 비롯해 총 57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김혜순에 따르면 『한 잔의 붉은 거울』은 그의 시집 가운데 “가장 感情的인(with the most emotion)”(Albin & Bac, 2019: 91) 시집이다.

김혜순 시와 관련된 논문은 그간 꾸준히, 조금씩 소개되었다. 한국학술지인용 색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김혜순 시에 관한 논문은 2000년부터 매년 1-7편이 게재되어 2022년 8월 현재 50편이 넘는다(www.kci.go.kr에서 “김혜순 시”로 검색한 결과). 하지만 이러한 논문의 상당수는 여성의 몸, 페미니즘, 수사법 등에 관한 국

문학 또는 여성학 논문이며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한 잔의 붉은 거울』과는 관련이 적다.

3.2. 『A Drink of Red Mirror』와 공동 번역자

역서 『A Drink of Red Mirror』는 미국의 한 대학강좌에서 비롯되었다. 신지원(Jiwon Shin, 담당 교수), 로렌 알빈(Lauren Albin), 배수현(Sue Hyon Bae)이 최종 번역본의 공역자로 참여했고, 수강생 5인(Rebecca Teague, Dakota Hale, Kevin Salter, Sierra Hamel, Nicole Lindell)이 일부 초역본 작성에 기여하였다. 수록된 각 시에는 주요 역자들의 이니셜이 “SHB”(배수현), “LA”(로렌 알빈) 등과 같이 표기되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분석 대상이 공동 작업의 결과물임을 고려하여 각 시를 특정 역자에 귀속하지 않았다.

이 역서에는 공동 번역의 과정과 특징을 추정케 하는 페리텍스트(peritext) 두 개가 있다. 하나는 ‘A Note on Collaborative Translation’(공동 번역에 관한 신지원의 후기)이고, 다른 하나는 ‘Translators’ Notes(로렌 알빈과 배수현의 역자 후기)’이다. 이 중 ‘역자 후기’에는 앞으로 논의할 대·소문자 구분, 구두점, 단어 간 공백 등이 다음과 같이 짧게 언급되어 있다.

우리는 대·소문자와 구두점 사용에 대해 논의했다. ‘원저자가 대개 구두점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까?’ ‘영어와 비교해볼 때 한국어는 구두점 사용 면에서 자유로운 편이니 이 번역에서는 구두점을 넣어야 할까?’⁴⁾ 우리는 ‘Mixer & Juicer’와 ‘Eye of a Typhoon(태풍의 눈)’에 나오는 이상(李箱) 시를 읽고, 붙여쓰기(his eschewal of spaces between words)를 번역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다. (Albin & Bae, 2019: 90, 필자의 번역임)

공동 번역이면 흔히 문체, 어조, 목소리 등에서 번역자 간 차이가 있지만, 이 역서에는 그런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Reeck, n.d.). 시에 따라 번역 방식에 미묘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필자의 논의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A Drink of Red Mirror』는 “여러 김혜순(many Kim Hysesoons)”(Albin & Bae, 근간)이 공존하는 새로운 담화 공간이다.

4) or should we add it, since punctuation is not as necessary for readable Korean as it is for readable English?

4. 『A Drink of Red Mirror』에 나타난 형태적 특징

이제부터는 영어 번역자가 원작의 형태적 특성을 어떻게 재구성했는지를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분석 사례는 ‘오래된 냉장고’, ‘그믐’, ‘O’, ‘얼굴’, ‘갈겨쓴 편지’, ‘태풍의 눈’, ‘Mixer & Juicer’ 등 총 일곱 편이다.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사례에서는 역자 1명과 이메일 교신을 소개할 것이다.

4.1. 레이아웃

<예시 1>은 ‘오래된 냉장고’라는 시의 원문과 번역이다. 원문은 구조적 측면에서 운문이 아닌 일반 산문처럼 보인다. 이에 비해 영어 번역은 편집 오류인가 싶을 정도로 독특하다. 번역자에 따르면 길쭉한 왼쪽 단(column)은 독자가 냉장고의 외형을 연상할 수 있도록 도입한 실험적 레이아웃이다(배수현과의 이메일 교신, 2022.7.12.).

| 오래된 냉장고 | OLD REFRIGERATOR |
|---|---|
| <p>나보다 먼저 내 맘이 너에게로 가려고 하는 것, 필사적으로 참고 있다. 나보다 먼저 내 인심이 너에게로 가려고 하는 것, 나는 필사적으로 참고 있다. 벌써 이렇게 잠은 지 수십 년. 생각해보니 참 묘하다. 내가 이렇게 잠고 있었던 건 내가 내 소유의 냉장고를 갖게 된 후부터 인 것도 같다. 그러나 나나 나는 생각해왔다. 내 머릿속은 얼음으로 꽂 차 있고, 내 차다친 발을 밟던 사람은 모두 기질한다. 내 가슴속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얼음이 얼어붙는다. 그러나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자. 아무에게도 손 뻗지 말자. 나는 또 이것도 잊지 말자고 생각했다. 그나마 내가 이렇게 필사적으로 참고 있으니 내 방 안에서 나뭇잎 하나 떨어지지 않고, 양을 막치고 새 한 마리 날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바람이 불어도 필사적으로 220볼트의 콘센트 속에 손가락을 끼운 채 버티자. 얼어붙은 풍경화, 열이나 아무다운가. 그 풍경 속의 일이나 얼음광주 일어나 순결한가. 그러나 허벅지 밑으로 피가 조금 흘러내려도 금방 얼어붙을 테니 걱정 말자. 박은 뜨겁고, 안은 시리다. 시리다 못해 팽팽히 끓는다. 문을 열면 화살처럼 놀라 불을 켜는, 얼어붙은 창자들을 매단 겨울 풍경화 한 장. 태풍이 와서 정</p> | <p>Instead of my feet running to you first, I hold back. Instead of my lips going to yours first, I desperately hold back. Already, I've passed decades holding back. It's strange to think about it. It seems I've been holding back like this since I got my own refrigerator. Anyway, I keep thinking. My mind is crowded with ice. Anyone who touches my cold foot loses consciousness. The lips of any person who enters my heart turn to ice. So, I will not take even one step from here. I will not reach out my hand. Again I tell myself not to forget about this, nevertheless, I hold back so desperately that not even a leaf falls in my room and not even a bird kicks off from the ground to fly. I will reduce the wind that desperately blows in with my fingers in a 220 volt socket. The frozen landscape, how beautiful. Lady Ice of the frozen kingdom inside that landscape, how pure. I won't worry about the blood trickling down my thigh as it will soon freeze solid. Outside hot, inside cold. It's so cold it boils. When the door opens and the light is started on, a winter landscape displaying frozen intestines. Aloo for decades until</p> |

예시 1. 오래된 냉장고(p. 20), Old Refrigerator(p. 11)

- 5) 이 시의 주요 번역자는 LA(로렌 알빈)이다. 시의 끝부분(p. 12)이 아래와 같음을 고려할 때 왼쪽 단만을 사용한 것은 의도적이다.

the typhoon came, the blackout
lasted for days, and everything
inside rotted away completely.

LA

www.kci.go.kr

<예시 2>는 ‘그믐’이라는 시의 원문과 번역이다. 원작의 형태적 특징은 페이지 레이아웃이 아닌 탭(띄어쓰기 서너 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첫째 행 “그날__밤, 내 몸에서 달이 다 빠져나간__밤”을 보자. 여기서 김혜순은 탭을 사용하여 ‘밤’과 ‘밤을 수식하는 부분’을 확연히 구분하였다. “__밤”은 거의 모든 행에서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므로 시각적으로 매우 강렬한 효과를 준다. ‘밤’ 앞에 있는 긴 공백은 읽기를 늦추거나 일시적으로 중단케 하여, 독자가 ‘밤’에 더욱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 | |
|---|---|
| <p>그날 밤, 내 몸에서 달이 다 빠져나간 밤 어항 속의 금붕어도 발발 떠는 밤 별들이 우물쭈물 경수하랴 말고 우물 밑바닥에 납작 열드리 세끼고양이처럼 가르퉁거리는 밤 어디에서도 너를 찾을 수 없는 밤 밤나무의 모든 밤이 적절로 떨어지는 밤 잊혀진 천문대가 숨어들어오는 UFO들로 정신없는 밤 내 몸에서 빠져나간 달이 죽어버린 밤 내 전화벨 소리가 네 방을 태워버리는 밤 강물들이 내 속에서 터지는 비명들을 이기려고 아주 아주 시끄러운 밤 마을 불빛들이 황복 황복 하고 하나의 꺼져버리는 밤 네 인의 주름 속에 숨어 있다 겹쳐진 밤 어둠이 너를 좌측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내놓지 않는 밤, 그날 밤 저 어둠의 경막을 내 비명의 날로 내리그으면 그 칼자국 사이로 싸늘한 빛 한 파람 팽팽히 터져 들어올 것 같은 밤, 그날 밤</p> | <p>that night the night the moon slips out of my body the night even the goldfish trembles in its bowl the night stars stop purifying the water and lie down at the bottom of the well purring like kittens the night you can't be found anywhere the night all the chestnuts fall off the chestnut tree the night a forgotten observatory is wild with UFOs that steal in the night the moon that slips out of my body dies the night the sound of my phone burns your room the night very very noisy because the river waters endure the screams erupting inside me the night the lights of the town give in turning off one by one the night kicked aside after hiding inside the creases inside you that night the darkness folds you up then puts you in its pocket and won't let you out that night so tense that when I draw the blade of my shriek down the veil of darkness a cold ray of light might explode in through that wound</p> |
|---|---|

예시 2. 그믐(p. 41), Lunar Month's End(p. 23)

원문의 형태적 특징은 번역에서 다르게 구현되었다. 역자는 레이아웃을 2단으로 구성한 후, 왼쪽 단에는 시의 제목이자 소재인 **night**를 넣고, 오른쪽 단에는 **night**를 수식하는 어구를 넣었다. 이러한 시각적 특성은 원문과 비슷하면서도 색다른 효과를 연출한다.

4.2. 소문자

번역자는 원작의 형태적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영어의 대·소문자 사용에도 신경을 썼다. 다음 두 예시를 살펴보자.

<예시 3>

우리가 마주 앉으면

우리는 O가 되어요

www.kci.go.kr

당신은 (가 되고
나는) 가 되어요
[중략]

마주 앉은 우리를 여기 두고
O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의 두 손이
얼음조각의 두 손처럼 녹아내리는데
O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아요 (pp. 30-31)

when we sit face to face
we become O
you become the (
and I become the)

O still doesn't come
having left us behind sitting face to face
our two hands
melting like two hands of sculpted ice
yet still O doesn't come (p. 17, 밑줄은 필자의 것)

<예시 3>은 “O”라는 시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각적으로나 의미상으로 O이다. 시적 화자가 O의 일부이며 O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다. 역자는 이 시의 실험적 특성을 부각하면서도 O를 강조하기 위해 행이나 메시지의 시작을 대문자로 표기하지 않고 소문자로 표기하였다(배수 현과의 이메일 교신, 2022.7.12.).⁶⁾ 새로운 메시지가 시작되는 밑줄 친 부분에서도 **Our...**로 표기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러한 쓰기 전략은 O만이 대문자처럼 보이게 하고 O를 더욱더 두드러지게 한다.

이처럼 소문자로 행을 시작하는 쓰기 방식은 유표적이다. 아래 인용문(‘거미’의 첫 번째 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A Drink of Red Mirror』의 다른 시에서는 행을 대문자로 시작하기도 한다.

6) “O가 중요하니 좀 튀게 했습니다… 다른 많은 시들은 문장의 시작을 표시하기 위하여 uppercase(대문자)를 이용했습니다.”

<예시 4>

병어리 여자가 창틀에다 수를 놓는다
한없이 떠는 숲과 소용돌이치며 끓는 늪
몸부림치는 강물의 살점들
부르짖으며 터지는 강둑 하나, 둘
몸속의 어깨뼈가 툭툭 부러지는 나뭇가지
다 빠져 훑날리는 그 여자의 검은 머리털들 (p. 73)

A mute woman sits embroidering in the window
The woods tremble endlessly and the swamp boils and eddies
The meat of the river writhes
One riverbank bursts screaming, then another
The shoulder bones of tree branches snap
The woman's black hair falls out and scatters (p. 45)

『A Drink of Red Mirror』 전체를 놓고 보면, 역자의 대·소문자 사용은 어떤 명확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예시 3>이 보여주듯이 역자가 시를 어떻게 읽고 해석하느냐도 대·소문자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인 것 같다.

<예시 5>

당신의 얼굴은 당신 속의 당신이 당신을 팽팽하게 당기고 있는 모습 그대로 굳어져 있습니다 가끔 그 얼굴이 당신 밖의 내 얼굴로 기울어지기도 하고, 당신의 두 눈동자 속에서 나를 내다보는 당신 속의 당신을 내가 느끼기도 하지만 당신 속의 당신이 당신을 당겨 잡은 그 손을 놓은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팽팽히 당겨져 있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그 긴장을 견디느라 이제 주름이 깊습니다 (p. 16)

Your face solidifies into the same shape that the you inside you has pulled taut that face sometimes leans out into my face outside you, I sense inside your two pupils the you inside you that peers out at me but the you inside you has never let go of that tight hold on your hand you are still pulled taut your face is deeply wrinkled from enduring that tension (p. 9, 밑줄은 필자의 것)

<예시 5>는 ‘얼굴(Face)’의 세 번째 연이다. 이 연은 네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두 번째 문장은 세 개의 작은 절, 즉 “가끔 그 얼굴이… 기울어지기

www.kci.go.kr

도 하고”, “당신의… 느끼기도 하지만”, “당신 속의… 한번도 없습니다”가 합쳐진
장문이다. 이 시에서도 김혜순의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마침표가 사용되지 않았
고) 의미 단위의 행 구분도 없다. 따라서 호흡이 길고 읽기가 쉽지 않으며 시각적
으로도 매우 이질적이다.⁸⁾

역자도 원작 시의 느낌을 재현하였다. 우선, 원작에서처럼 마침표를 쓰지 않아
기본적으로 장(長) 호흡을 유지하였다. 또한 밑줄 친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두 번
째 문장부터 네 번째 문장까지 문장의 첫 글자를 소문자로 표기하였다. 이처럼 의
도적인 소문자 사용은 마침표 탈락과 함께 원문의 긴 호흡과 시각적 충격 나아가
어려운 읽기 경험을 구현하는 데 기여한다.

4.3. 이탤릭체

김혜순의 시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독특한 방식으로 공존한다. 영어 번역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두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예시 6>

그 오래된 사원의 지하엔 천 마리 쥐들이 숨어 있대
인간으로 환생할 날을 기다린대 네 죽음이
시킨 걸 거야 왜 그러냐 하면 죽음도 살고 싶거든
네가 불러냈으니까 네가 쫓아버려 나는 하염없이 편
지를 쓴다 (pp. 107-108)

*They say there are thousands of rats hiding in the basement of that ancient
temple They say they're waiting for the day they will be reborn as human
Your death probably ordered it Because even death wants to live You called
them so you chase them away I write a letter endlessly (p. 71)*

<예시 6>은 ‘갈겨쓴 편지(Scribbled Letter)’에서 발췌한 것이다. 원문을 보면 여
러 개의 문장이 행 구분과 딱 들어맞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7) 거의 모든 시에 마침표가 없다. 마침표가 있는 시는 ‘오래된 냉장고’, ‘칼의 입술’(단, 시 끝 한 곳에
서만 사용), ‘낙랑공주’, ‘내 꿈속의 문화혁명’뿐이다.

8) 번역자는 이 연을 “숨이 막힐 정도의 스타일”, “끝없는 문장”으로 묘사했다(배수현과의 이메일 교
신, 2022.7.12.).

문장 끝에 마침표가 없지만, 독자는 문장이 어디에서 끝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대화체 종결어 “~있대”, “~기다린대”, “~거야”, “~거든”, “~버려” 때문이다. 이러한 말투는 평서체 문장 “나는 하염없이 편 / 지를 쓴다”와 대비된다. 이 문장을 통해 독자는 앞서 나온 대화체의 문장들이 다른 공간의 담화임을 추측할 수 있다.

번역에서는 영어의 특성상 원문과 똑같은 방식으로 화법 변화를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역자는 편지 내용만을 이탤릭체로 표현하여 화자(나)의 현실 세계와 이전 담화 세계를 구분하였다.⁹⁾ 한국 독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대화체 문장 간의 구분은 각 문장의 첫 자를 대문자로 표기해 구현하였다.

<예시 7>

미친 새들이 서로 벗을 붙이고
밤하늘 둥그렇게 난다
숲 속 작은 집 창가에 작은 아이가 있는데
토끼 한 마리 달려와 문 두드리며 하는 말
그들의 노랫소리 들려온다
살려줘요 살려줘요
끊이지 않는 딸꾹질처럼 내 먹을 따는 노래 (p. 58)

Mad birds comb-to-comb

encircle the night sky

Little cabin in the woods a little child by the window stood

Saw a rabbit hopping by knocking at the door

The sound of their singing¹⁰⁾

Help me help me

A song that cuts my throat like hiccups that won't stop (p. 36)

<예시 7>은 ‘태풍의 눈(Eye of a Typhoon)’에서 발췌한 것이다. 원작에서 독특한 점은 한국인에게 매우 익숙한 동요인 “숲 속 작은 집 창가에 작은 아이가 있는데 / 토끼 한 마리 달려와 문 두드리며 하는 말 / … / 살려줘요 살려줘요”가 뚜렷한

9) “미국 현대 시에서는 대화나 생각을 나타낼 때 이탤릭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탤릭체를 사용하지 않으면 원본에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시가 너무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수현과의 이메일 교신, 2022.7.12.)

10) 본 논문에서는 역자의 의도에 따라 The sound of their singing을 독립 행으로 처리하였다. 역서에는 “*Saw a rabbit hopping by knocking at the door*The sound of their singing”(“The sound…” 앞에 줄 바꿈 없음)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편집상의 오류이다(배수현과의 이메일 교신, 2022.7.12.).

표지나 단서 없이, 갑자기 나온다는 점이다. 동요 중간에는 다른 어투의 목소리(화자의 목소리) “그들의 노랫소리 들려온다”가 삽입되어 있다.

이와 비교해, 영어 번역에서의 동요는 이탤릭체로 처리되었고, 동요에 삽입된 시적 화자의 목소리(“The sound of their singing”)는 이탤릭체로 처리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탤릭체는 독자의 마음속에서 동요를 낭송하는 효과를 준다. 한편 이탤릭체 부분을 자세히 보면 원문을 그대로 옮겼다가보다는 기존의 영어 동요(예: Little cabin in the wood Little man by the window stood Saw a rabbit hopping by Knocking at the door “Help me, help me, help me”)를 거의 그대로 인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영어 동요에서처럼 “작은 아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a little man으로 쓰지 않고, 원작 시를 반영한 a little child로 번역했다. ‘태풍의 눈’은 아이에 관한 시¹¹⁾이기 때문에 child를 명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4.4. 띄어쓰기

원작 시집에는 띄어쓰기 어법이 파괴된 부분도 있다. 다음 사례는 번역자의 독특한 띄어쓰기 전략을 보여준다.

<예시 8>

세 가지 색깔의 꽃을 분쇄 중인 Mixer & Juicer를 들여다본다
꽃이香氣롭다꽃이滿開한다나는거기서幕穴을판다
꽃이香氣롭다꽃이滿開한다나는거기서幕穴을판다
李箱의 시는 신형 Mixer & Juicer를 위한 주술이다 (p. 92)

I look inside the mixer and juicer pulverizing flowers of three colors
T h e f l o w e r s a r e f r a g r a n t t h e f l o w e r s b l o s s o m I d i
g a g r a v e t h e r e
T h e f l o w e r s a r e f r a g r a n t t h e f l o w e r s b l o s s o m I d i
g a g r a v e t h e r e
Yi Sang’s poetry is a spell for the new-model mixer and juicer (p. 36)

<예시 8>은 ‘Mixer & Juicer’라는 시에서 발췌한 것이다. 여기서 “꽃이香氣롭

11) <예시 6> 바로 앞에는 “가슴이몽개진아이”, “폐의숨구멍마다돌이가득찬아이”, “열손가락이다뿔이진부챗살처럼너털거리는아이” 등 여러 아이가 언급된다.

다꽃이滿開한다나는거기서墓穴을판다”는 실험적 글쓰기로 유명한 이상의 “절벽”에서 발췌·변용한 것이다. ‘절벽’의 시작 부분은 다음과 같다.

꽃이보이지않는다. 꽃이 향기롭다.
향기가만개한다. 나는거기묘혈을판다.

이 시구와 <예시 8>의 원문은 내용뿐만 아니라 형태적 측면에서도 유사하다. ‘절벽’에서도 두 번째 문장(“꽃이 향기롭다”)을 제외하면 띄어쓰기가 없다. 그런데 김혜순의 시구는 이상의 것보다 파격적이다. 세 문장 모두(꽃이香氣롭다/꽃이滿開한다/나는거기서墓穴을판다) 띄어쓰기 없이 붙어 있고, 각 문장 끝에는 마침표가 없다.

<예시 8>의 영어 번역에서는 원작과 달리 알파벳 글자 하나하나를 띄어 썼다. 물론 *TheflowersarefragranttheflowersblossomIdigagravethere*와 같이 원작을 그대로 흉내 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영어 독자의 관점에서 볼 때 가독성이 낮은 번역이다(배수현과의 이메일 교신, 2022.7.15.). 번역자는 원작보다 지나치게 어렵지 않으면서도 원작의 시각적 이질감을 재현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¹²⁾ 그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방식이 바로 <예시 8>의 띄어쓰기이다.

<예시 8>의 번역 방식은 다른 영어 번역과 비교해도 독특하다. 일례로, 미국 현대언어학회(MLA)의 ‘알도 앤 잔 스칼리오네상’(The Aldo and Jeanne Scaglione Prize)을 수상한 시선집 『Yi Sang: Selected Works』에는 앞서 언급한 ‘절벽’이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다.

I cannot see the flower. The flower is fragrant. The fragrance is in full bloom. I dig a grave in it. (Jung 2020, 53)

『A Drink of Red Mirror』에서 원작의 붙여쓰기가 항상 <예시 8>처럼 번역된 것은 아니다. ‘태풍의 눈’ 2연에도 붙여쓰기가 있는데, 그 번역은 아래 예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띤다.

<예시 9>

가슴이몽개진아이 폐의숨구멍마다돌이가득찬아이 열손가락이다짚어진부챗살

12) 배수현은 “몇 가지 실험을 한 후(예: *flowers.arc.fragrant*, *flowers:arc:fragrant*) 사이사이에 space를 넣는 것이 좋은 해결이라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처럼너털거리는아이 두입술이붙어버린아이 눈알이다녹은아이 이빨을다갈아버
린아이 갈비뼈가다빠개진아이 머리털을다뽑혀버린아이 무엇보다피가하수구로
다빨려나간아이 껌처럼혀기풀어진아이 고양이한테뇌수를다빨려버린아이 (p.
58)

a child with a crushed chest a child whose lung at every breathing hole is
filled with stones a child with ten fingers tattered like a folding fan a child
whose two lips are stuck together a child whose eyeballs have melted a child
whose teeth have been ground away a child whose ribs have been smashed
away a child whose every strand of hair has been plucked a child whose
blood among other things has been sucked into the drain a child whose tongue
has been stretched like chewing gum a child whose brain has been sucked dry
by a cat (p. 36)

<예시 9>에는 여러 유형의 ‘아이’가 나온다. 원문에서 각 명사구 사이에는 띄어
쓰기가 있지만, 명사구 내 모든 글자는 붙어 있다. 이에 비해 번역에서는 a child
로 시작하는 명사구 사이에만 띄어쓰기가 ‘크게’(두세 칸) 있고, <예시 8>에서 확
인한 알파벳 글자 간 붙여쓰기나 띄어쓰기는 없다. 즉, 역자는 원문처럼 붙여쓰기
를 하지 않았지만, 띄어쓰기 간격을 넓혀서 각 명사구가 시각적으로 강조되는 효
과를 유지하였다.

5. 프랑스어 번역본과의 비교

본 연구를 위해 2016년 출간된 프랑스어 번역본 『Un verre de miroir rouge』(번
역자: Choon-woo Yee와 Lucie Angheben)¹³⁾도 간단히 살펴보았다. 영어 번역본과
프랑스어 번역본을 비교하는 이유는 더 좋은 번역본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번
역자에 따라 원작 시의 형태적 요소를 재현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지면 제약이 있고 이미 앞에서 살펴본 시이므로 본 장에서는 ‘오래된

13) 프랑스어 번역은 “Digital Library of Korean Literature”(https://library.ltkorea.or.kr) 전자책에서도 확
인할 수 있다. 다만 이 전자책은 확대·축소가 가능하여 시의 형태적 특성이 가변적이며, 따라서
형태적 특징이 종이 인쇄본과 다를 때가 있다. 일례로 아래 <예시 11>과 <예시 15>의 경우 종이
책과 전자책의 모습은 크게 다르다. 이 논문의 프랑스어 사례는 종이책에서 발췌한 것이다.

냉장고(Le vieux frigo)', '그믐(La fin du mois)', 'O', 'Visage(얼굴)', '갈겨쓴 편지(La lettre griffonnée)', '태풍의 눈(L'œil du typhon)', 'Mixer & Juicer' 순으로 프랑스어 번역을 나열한 후, 영어 번역본과 프랑스어 번역본의 차이만을 간단하게 언급할 것이다.

<예시 10> 오래된 냉장고 (p. 26)

LE VIEUX FRIGO

Mes pieds avant moi veulent aller vers toi, je me retiens désespérément. Mes lèvres avant moi veulent aller vers toi, je me retiens désespérément. Déjà des dizaines d'années que je me retiens. Quant j'y pense c'est vraiment curieux. On dirait que je me retiens ainsi depuis le jour où j'ai eu mon propre frigo. Toujours est-il que j'en suis venue à penser ainsi. L'intérieur de ma tête est entièrement rempli de glace, tous ceux qui touchent mes pieds gelés s'évanouissent. Tous
(이하 생략)

<예시 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프랑스어 번역본은 앞 장에서 소개한 영어 번역본과 큰 차이를 보인다. 2단 구조(냉장고 외형)를 통해 구체 시를 만들려는 영어 번역자와 달리, 프랑스어 번역자는 원작과 동일한 레이아웃을 사용하였다.

<예시 11> '그믐'의 일부 (p. 43)

Cette nuit, la lune s'échappe de mon corps cette nuit
Même les poissons rouges tremblent dans leur bocal
cette nuit
Les étoiles ont interrompu la purification de l'eau du puits
Allongées tout au fond
Comme des chatons elles miaulent
cette nuit
Je ne peux te trouver nulle part
cette nuit

www.kci.go.kr

<예시 11>에서 볼 수 있듯이, 원작에서 탭으로 강조된 ‘… 밤’(cette nuit)은 프랑스어 번역에서 독립된 행으로 재구조화되기도 하였다(밑줄 친 부분). 이는 원문과 마찬가지로 ‘밤’의 위치를 행의 오른쪽 끝에 배치하기 위함이다.¹⁴⁾

<예시 12> ‘O’의 시작 부분 (p. 33)

Si nous nous asseyons face à face
Nous devenons O
Vous devenex (
Je deviens)
Une station de métro où les rames sont toutes parties
Ou bien une grotte chaude
Cachée au fond de la mer glaciale
Un oeuf chaud s’y vide de ses larmes
Nous devenons O (이하 생략)

<예시 12>에서 볼 수 있듯이, ‘O’를 강조하기 위해 행 시작을 소문자로 표기한 영어 번역본과 달리, 프랑스어 번역자는 각 행을 대문자로 시작하였다.

<예시 13> 얼굴 (p. 22)

Votre visage se fige selon l’expression tendue du vous
à l’intérieur de vous Parfois ce visage penche vers mon
visage hors de vous et parfois je sens le regard du vous
à l’intérieur de vous qui me fixe de vos deux yeux,
mais le vous à l’intérieur de vous n’a jamais relâché
la main qui s’accroche à vous Vous être toujours
solidement tendu Vos rides sont profondes parce que
votre visage a été obligé de supporter cette tension
(이하 생략)

<예시 13>에서 볼 수 있듯이, 프랑스어 번역자도 마침표 없이 원문의 장문을 그대로 재현하였다. 다만 영어 번역과 달리 모든 문장의 시작을 대문자로 표기하였다. 밑줄은 필자가 추가한 것으로, 문장이 새로 시작되는 부분이다.¹⁵⁾

14) 프랑스어 번역자는 구(phrase)로 표현된 영어 번역과 달리 각 행을 절(clause)로 표현하였다. 이런 통사적 차이는 ‘밤’의 위치와 관련 있다.

<예시 14> 갈겨쓴 편지 (p. 106)

On dit que mille rats se cachent au sou-sol de

l'ancien temple

En attendant le jour de leur réincarnation en

humain, c'est ta mort

Qui les y a poussé, parce qu'elle aussi a envie de

vivre

C'est toi qui les as invités, alors c'est à toi de les

chasser ! J'écris sans fin cette lettre

<예시 14>와 <예시 15>가 보여주듯이 프랑스어 번역에서는 이탤릭체가 사용되지 않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영어 번역에서는 말투와 서술 상황이 달라지는 부분 그리고 동요가 삽입된 부분에서 이탤릭체가 적용되었다.

<예시 15> 태풍의 눈 (p. 61)

L'enfant au cœur érasé l'enfant aux bronches rem-

plies de cailloux l'enfant aux dix doigts déchirés qui

s'effrangent comme les baleines d'un éventail l'enfant

aux deux lèvres collées l'enfant aux globes oculaires

complètement fondus l'enfant aux dents toutes arrachées

l'enfant aux côtes brisées l'enfant aux cheveux arrachés

surtout l'enfant qui a perdu tout son sang dans l'égout

l'enfant à la langue fondue comme du chewing-gum l'en-

fant qui a nourri un chat de son cerveau

Les oiseaux fous se collent leur crête les uns aux
autres

Et s'élèvent en cercle dans le ciel nocturne

Dans une petite maison dans la forêt un enfant

regarde par la fenêtre

Un lapin arrive en courant et frappe à la porte

On les entend chanter

Aidez-moi ! Au secours !

15) 영어 번역에서는 두 번째 문장부터 네 번째 문장이 that... you... your로 시작되지만, 프랑스어 번역에서는 Parfois(Sometimes)... Vous(You)... Vos(Your)... 로 시작된다.

<예시 15>와 <예시 16>에서 볼 수 있듯이 프랑스어 번역자는 원작의 ‘붙여쓰기’를 그대로 재현하였다. 아이를 묘사하는 일련의 명사구(예: “가슴이뭉개진아이 폐의숨구멍마다돌이가득찬아이...”)를 원문과 똑같이 붙여 썼으며, 이상의 시를 변용한 구절(“꽃이香氣롭다꽃이滿開한다나는거기서幕穴을판다”)에서는 붙여쓰기를 하되, 영어에서와 달리 각 문장의 시작을 대문자로 표기하였다(L··· L··· J···).

<예시 16> Mixer & Juicer (p. 93)
LafleurembaumeLafleurfleuritJecreuseuntru
LafleurembaumeLafleurfleuritJecreuseuntru
Le poème de Yi Sang est une incantation pour un
nouveau modèle de Mixer & Juicer

<예시 10>부터 <예시 16>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프랑스어 역자는 영어 역자와 달리 시의 형태적 특성을 원문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6. 맺음말

지금까지 필자는 『한 잔의 붉은 거울』을 기반으로 실험 시의 형태적 특성이 영어 번역본에서 어떻게 재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프랑스어 번역본과 영어 번역본을 간략히 비교함으로써 영어 번역본의 텍스트적 재현이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번역자의 선택임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의 세부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하다.

첫째, 번역자는 원작 시의 형태적 특징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시의 형태를 재구성하기도 한다. 번역자가 시의 형태를 바꾸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 특히 원저자가 김혜순처럼 위상이 있고 시 자체도 형태적으로 실험적이면 더욱더 그러하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영어본 역자는 일부 시에서 다단 구조와 같은 새로운 레이아웃을 도입하였고, 대·소문자를 변칙적으로 사용(구분)하여 원작이 풍기는 이질감을 또 다른 차원에서 재현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매우 강렬한 붙여쓰기를 독특한 띄어쓰기로 코딩하기도 했다. 이러한 형태적 변화들은 띄어쓰기, 대·소문자, 이탤릭체 등과 관련해 앞서 논문 2장에서 살펴본 내용(이상빈, 2022)과도 유사하다. 어쩌면 띄어쓰기, 대·소문자, 이탤릭체 등은

영어 시의 형태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기본적인 장치일지도 모른다.

둘째, 시의 형태는 번역자 및 도착어에 따라 달리 표현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영어 번역본의 형태와 프랑스어 번역본의 형태는 필자가 분석한 영역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프랑스어는 언어적 속성 면에서 한국어보다 영어에 훨씬 가깝다. 하지만 본 연구가 살펴본 프랑스어 번역본은 언어의 형태적 속성 면에서 오히려 한국어 원문과 흡사했다. 따라서 두 번역본의 형태적 차이는 언어 간의 미묘한 차이에서 비롯됐을 수도 있지만(Niknasab & Pishbin, 2011: 3), 언어의 본연적 특성과 관계없이 번역자 개인의 주관적 해석과 판단 때문에 발생했을 수도 있다.

셋째, 한 역서 내에서도 똑같은 외형적 특성이 시에 따라 달리 표현될 수 있다. <예시 7>과 <예시 8>에서 보았듯이 (공동)역자는 원문의 붙여쓰기를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구현하였다. <예시 7>에서는 붙여쓰기 없이 명사구 사이에서만 큰 간격을 두었고, <예시 8>에서는 모든 글자 사이에 띄어쓰기를 적용했다. 이는 일관성 부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원작 시의 성격과 역자의 해석에 따라 번역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뜻한다. 시의 형태도 시의 총체적 의미에 포함되며(Sullivan, 2019), 이때의 형태는 하나로 정해진 개념이 아니다. 텍스트의 의미가 독자(번역자 포함)에 의해 다양하게 해석되듯이, 형태 또한 본질적으로 다양한 해석을 수반한다.

본 연구는 그간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시의 형태적 요소의 번역을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분석 내용은 제한된 언어와 제한된 텍스트 쌍에 근거하므로 결과의 일반화는 피해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시인의 실험 시를 기반으로, 시의 형태적 특성이 여러 언어로, 여러 번역자에 의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형태적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나아가 번역에서의 형태적 변화가 독자 수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탐구해야 한다.

참고문헌

- 이상빈. (2021). 「판소리는 어떻게 풍요롭게 번역할 수 있는가 - 마살 필의 <심청가> 번역을 기반으로」. 『통번역학연구』 25(4): 173-200.
- 이상빈. (2022). 「케빈 오록의 시조 번역의 구조적 특징 -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를 기반으로」. 『통번역학연구』 26(2): 109-132.
- 정인모. (2021). 「독일 ‘구체사와 지역학 수업」. 『교사교육연구』 60(3): 413-420.
- Albin, L. and Bae, S. H. (2019). Translators' notes. In Kim, H. *A Drink of Red Mirror* [한 잔의 붉은 거울] (J. Shin, L. Albin and S. H. Bae, Trans.). Notre Dame, Indiana: Action Books.
- Albin, L. and Bae, S. H. (근간). 「Our own Kim Hyesoon: Collaborative translation of A Drink of Red Mirror」. 『한국문학 번역의 미래를 묻다(미확정 도서명)』(조의연과 이상빈 편저). 파주: 김영사.
- Lee, P. H. (1981). *Anthology of Korean Literature: From Early Times to the Nineteenth Century*. Honolulu: The University Press of Hawaii.
- Li, L. (2020). Writing and translating concrete poetry in Chinese characters. In Corbett, J. and Huang, T. (eds.), *The Translation and Transmission of Concrete Poetry*. London: Routledge, 36-55.
- Niknasab, L. and Pishbin, E. (2011). On the translation of poetry: A look at Sohrab Sepehri's *Traveler*. *SKASE Journa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5(1): 1-22.
- O'Rourke, K. (1995). (trans.). *Poems of a Wanderer: Selected Poems of Midang So Chong-ju*. Dublin: The Dedalus Press.
- Pondian, J. D. F. (2020). The origins of the untranslatable: The earliest Western visual poetry. In Corbett, J. and Huang, T. (eds.), *The Translation and Transmission of Concrete Poetry*. London: Routledge, 21-35.
- Rutt, R. (1971). *The Bamboo Grove: An Introduction to Sijo*.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ullivan, C. (2019). Poetry. In Washbourne, K. and van Wyke, B.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Literary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268-281.
- Underhill, J. (2016). *Voice and Versification in Translating Poems*. Ottawa: University of Ottawa Press.
- Yi, S. (2020). Cliff [절벽] (J. Jung, Trans.). In Choi, D.M. (ed. and trans.), *Yi Sang: Selected Works*. Seattle: Wave Books, 53. (Original work published 1936)

<인터넷 자료>

- 김정연. (2022.4.29). “시는 슬픔을 더 슬픔답게 하는 장르” ... 어머니 상실 담은 시집 낸 김혜순.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7518#home\(2022.10.1.검색\)](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7518#home(2022.10.1.검색)).
- Reeck, M. (n.d.). Matt Reeck reviews *A Drink of Red Mirror* by Kim Hyesoon. *Asymptote*. Retrieved on May 25, 2022 from <https://www.asymptotejournal.com/criticism/kim-hyesoon-a-drink-of->

<분석 자료>

김혜순. (2004). 『한 잔의 붉은 거울』. 서울: 문학과지성사.

Kim, H. (2016). *Un verre de miroir rouge* [한 잔의 붉은 거울] (C. Yee and L. Angheben, Trans.).
Fuveau: Decrescenzo Éditeurs. (Original work published 2004)

Kim, H. (2019). *A Drink of Red Mirror* [한 잔의 붉은 거울] (J. Shin, L. Albin and S. H. Bae, Trans.).
Notre Dame, Indiana: Action 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2004)

This paper was received on 25 October 2022; revised on 4 December 2022; and accepted on 20 December 2022.

Author's email address

sblee0110@naver.com

About the author

Sang-Bin Lee is a Professor of Translation Studies in the Departmen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Communication (EICC)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is articles on the translation of Korean literature have been published in many scholarly journals, including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Acta Koreana*, *Translation Review*, *Pönyökhak yŏn'gu*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T'ongyökhwa pönyökhwa*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and *T'ongbönyökhak yŏn'gu*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Studies).